

낙산사 화마로 '전화위복' ... 보다 원형에 가까워져

양양 낙산사를 가다

2005년 화마로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가 제2차 복원불사를 통해 원형에 가까운 옛모습을 되찾았다. 화재 이후 낙산사는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2007년 11월, 1차로 원통보전 홍련암 범종각 홍예문 복지시설 상락원 낙산유치원 등 12개 전각과 시설을 복원(건립)했다. 이번 제2차 복원불사 회향으로 설선당, 응향각, 무산지역아동센터 등 12개 전각과 시설 불사가 끝났다.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총무원 재무부장은 10월 12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제2차 복원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녹원 동춘 정무 밀운 혜정 스님 등 원로스님, 설악산 신홍사 조실 오현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 주호영 특임장관,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낙산사 복원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되살아 난 천년 고찰의 옛 모습에 환희 찬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복원 불사와 함께 가람의 면모가 일신되고 교육과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관음도량의 정신을 되살리는 대작불사로 사찰 복원불사의 모범을 창출했다"고 치하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낙산사 복원을 계기로 불자와 국민 모두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어나가자"고 지시했다.

보선 스님은 치사를 통해 "넘치지 않은 절제와 겸손으로 장엄한 낙산사 복원의 미덕은 부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닮았다. 중생을 대하는 관세음보살의 풍정을 닮았다"고 말했다.

우송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제 낙산사는 어느 누구의 성지가 아닌 전 불자,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성지가 됐다"고 격려했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개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대륙한 축사에서 "기와 한 장, 나무 한 그루에도 자비의 성인을 아끼지 않은 국민에 감사하다"며 "복원불사 회향을 계기로 미소의 온기가 넘치는 자비의 인연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장관은 "낙산사 복원불사 회향을 통해 새로 태어난 낙산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국민안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처, 안식처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불자와 국민 모두가 마음의 불사를 이어나가자"고 축사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낙산사 복원불사의 공로를 기려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복원불사 총도감인 현고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정념 스님은 행사에서 쌀 10kg들이 1000포대를 양양군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지역아동센



10월 12일 낙산사 제2차 복원불사 회향식에서 봉행된 '빈일루' 현판 제막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이 자리했다. 무산지역아동센터(오른쪽 위)와 낙산사 유치원.

터 4곳에 도서 등 1000만원 상당의 필요물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낙산사는 제2차 불사 회향과 동시에 제3차 불사를 시작한다. 2012년까지 계속될 제3차 불사를 통해 도량 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불자와 국민의 수행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친필로 현판을 제작했다.

정념 스님은 "옛 문헌들 속에서 찾아낸 낙산사의 모습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과정은 문화재위원회와 어른 스님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낙산사 복원을 도와 준 종단의 스님들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관 스님 "관음도량 정신 되살리는 복원불사 모범" 108 법륜석 설선당 산불안전체험장 등 대중시설 눈길

정념 스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동안 복원불사를 해왔다"면서 "낙산사가 관음 기도성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살피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고증 통해 원연한 옛모습 찾아
정념 스님은 "(2차에 걸친 낙산사 복원은) 건물이나 당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이어간다는 책임감 속에서 낙산사의 역사를 되찾고 문화를 복원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낙산사 복원은 조선 중기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기본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정확한 복원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중사리탑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돼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해를 맞이하는 누각'이라는 뜻의 빈일루(賓日樓)

낙산사는 복원불사를 진행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과 사찰의 복지활동에 주목했다.

스님은 "아무리 많은 전각을 지어도 찾아올 불자가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산과 바다를 동시에 접한 낙산사에 자연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낙산사가 낙산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문화재입장료 징수를 보류하고, 점심마다 무료 국수공양과 커피를 제공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제공된 국수와 커피 비용만 매월 2000여 만원에 달했다.

#기도정진 자비도량으로 '열린' 낙산사
2차복원 불사 회향으로 낙산사는 '열린' 도량으로 거듭났다. △해수관음전 108법륜석=2차 복원불사를 통해 해수관음전에 선보인 108법륜석은 108개의 석대에 한 사람씩 앉아 108배 등 기도 정진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108법륜석은 낙산사를 장건한 의상 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진전했다는 흥련암과 함께 관음성지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수행공간이 될 전망이다.

△설선당, 정취전 등=원통보전 주변에 세워진 설선당, 정취전, 응향각은 낙산사가 대중을 위해 개방한 공간이다.

응향각에는 각 1평 남짓한 방에 좌복 만이 깔려 있어 누구나 참선을 경험할 수 있다. 설선당은 일반관람객을 위한 컴퓨터 정취전은 스님과 불자를 위한 공간으로 쓰일 다실 겸 지대방이다.

이 외에 원통보전 좌측에 자리한 고향실, 송월요, 근행당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으로 사용된다.

△산불재난안전 체험장=2005년 화재 당시 불길의 밀려든 길목에는 산불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산불재난안전 체험장이 설치됐다.

홍예문 아래 능선에 자리한 체험장에는 4년 여가 지난 지금도 화마에 숯덩이가 된 채 나무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이곳에는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이 화재로 녹아내린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무산지역아동센터=2차복원 불사에서는 불교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 포교를 위한 무산지역아동센터를 빼놓을 수 없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양양군내에 노인요양시설인 상락원, 낙산사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해 온 낙산사는 어린이 공부방 전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무산지역아동센터를 개원했다. 천년고찰 낙산사, 잿더미 속에서 무지개 꿈을 피어올린 2차 중창불사 회향으로 펼쳐질 새 천년에 사부대중 모두의 기대가 크다.

글=조동식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마음 모아줘 감사해"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낙산사 복원을 위해 4년 동안 마음을 모아 주신 종단 원로 큰 스님들과 낙산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낙산사가 관음 기도성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주시고요."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은 백천 감동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 2005년 4월 5일 순식간에 가람을 덮친 불길이 가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스님이기에 2차 복원불사 회향의 기쁨은 클 수밖에 없었다. "기쁨을 지기지 못한 죄인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복원불사를 이뤄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마 속에서 모셔낸 관세음보살님(건립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362호)께 수행과 기도의 힘, 정진의 원력으로 낙산사를 복원하겠다고 발원한 4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화마에 가람을 잃은 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즐지도 않았다. 스님은 '가람을 지켜내지 못한 주지'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복원불사를 향한 정진 뿐이라 생각했다.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 했지만, 삼재(三災, 화재 수재 풍재)마저도 비껴간 흥련암과 건립관음보살좌상을 보며 모두들 가마를 경험했다.

정념 스님은 "흥련암과 관세음보살님이 무사한 것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낙산사 복원의 원동력 또한 기도와 정진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각오로 흥련암 1000일기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대중이 뜻과 힘을 보탤 때. 매일 관음재일이면 전국에서 불자들이 몰려와 철야정진을 했다. 쉽없이 이어진 기도로 모아진 신심은 원력을 굳세게 다져갔다. 결국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원력은 다스려진 잿더미에서 천년고찰 낙산사를 꿰뚫어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은사인 광덕 스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는 진리에 눈뜨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 생활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불자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을 때 온갖 장애가 없어져 소망을 성취하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복을 비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도 수행의 새로운 물줄기를 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 역원이 말 중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기도! 삶의 벼랑 끝에서 잡은 기도!

누구는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데... 나는 왜 더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은 불자의 기도가 아니다. 무작정 빈다고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내 생명에 넘쳐 흐르는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광덕 스님 반야사상의 정수

- 01 기도의 근본 원리
- 02 기도 성취의 힘
- 03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은 것
- 04 행복의 의미
- 05 행복 창조의 비밀
- 06 행복을 창조한 사람들
- 07 행복 창조의 걸림돌
- 08 마하반야바라밀 기도법
- 09 기도수행의 휘방관
- 10 창조의 주체적 권능자
- 11 행복을 창조하는 축원문

혜담 스님 역음 / 256면 / 값 11,000원

광덕 스님 * 한국불교의 생활화·대화화·현대화를 정착시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광덕 스님은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존경받는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는 공경의 세계를 열어 보인 스님은 1990년 연방하연연 그 말씀은 끝까지 없는 생명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혜담 스님 * 직년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이 있었던 혜담 스님. 출가하고 나서 40여 년을 한결같이 공(空)을 깨닫기 위해 화두에 매달렸고, 기도는 도외시하였던 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기도수행(이하)로 가장 확실한 수행방법이라고 일러준 광덕 스님의 말씀을 큰 병을 앓고 나서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마하반야바라밀' 기도를 통해 병고에서 벗어난 스님은 퇴원 후 1년에 동안 은사인 광덕 스님 반야사상의 정수를 가려 뽑아 이 책을 엮었다.

www.bulgwang.or.kr